4·3 사건 70주년 제주불교 흔적 바로 세우기

〈12〉 도평동 서관음사

제주불교 혁신 주도… 4.3광풍에 희생



4.3 당시 제주 사회의 현안에 적극 참여해 무장대 활동에 나선 이세진 스님은 1942년 서관음사를 창건했다. 사진은 도평리 사라마을에 남아있는 서관음사 터.

이병철 제주불교 기자



제주서 강원교육 첫 실시하는 등 변화 이끌어
4.3사건 발발하자 제주인 무장대서 적극 활동
1949년 관음사 전투서 패배한 후 하산해 체포
주정공장 구금됐다 풀려난 후 다시 잡혀 수장

이세진 스님〈오른쪽 사진〉은 1910년 8월 25일 제주도 한경면 저지리에서 출생했다. 스님은 18세에 내장사에서 한고벽을 스승으로 출가하고 백양사에서 유금해를 계사(戒師)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내장사 총무직을 역임했으며, 백양사에서 법계를 품수받았다. 이후 내장선원에서 약 3년간 강사로 활동했고, 강원도 금강산 표훈사 중향강원 강사로 약 2년간 활동했다. 중향강원은 불교경전과 함께 근대 신학문을 교육하는 개혁적인 전통강원이었다.

1930년대 제주불교는 불교활동을 위한 불교단체를 구성해내 관음사 창건 이후 가장 왕성한 사찰의 증가와 전통불교사상을 실천하기 위한 신앙 양상의 변화를 위한 노력만이 아니라 본사가 다른 사찰의 통합 활동을 제주불교 인물들이 주체적으로 이끌어 내는 등으로 제주불교가 활성화된 시기였다.

백양사 주지 송종헌 스님은 이세진 스님을 제주도로 보냈다. 1939년 2월 백양사 한림포교당 포교사로 부임하여, 1939년 제주불교연맹 교육부장으로 활동했다. 제주불교연맹은 1930년대 제주불교의 통합 활동을 이끌었던 단체로 제주도 전역의 순회강연을 주도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이세진 스님도 불교와 신앙 등을 주제로 함께 순회강연에 참여했다.

또한 1940년 관음사포교당인 대각사의 제주강원에서 근대 제주불교의 첫 강원교육을 실시하고 1941년 20여 명에게 비구 수계를 주었다. 이세진 스님은 도평리 서관음사에서 기와 공장을 운영하며 승가의 경제 독립과 전통강원 설립을 의도하기도 했다.

이세진 스님은 전통불교를 지키려는 임제종 운동을 한 송종헌 스님과 백양사 활동을 했으며, 신학문을 교육한 중향강원의 강사를 역임하고, 사찰의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는 등 혁신적인 사상을 가진 인물이다.

1948년 제주4·3사건이 일어나자 이세진 스님은 제주사회의 현안에 적극 참여해 무장대 활동에 나선다. 무장대의 제주도당사령부 소속으로 관음사를 무대로 활동했다. 1949년 2월 12일 관음사 전투의 패배로 귀순하여 3월경 산에서 내려왔다. 1949년 3월 토벌대의 선무 공작으로 귀순 권고 삐라를 뿌린 후에 내려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세진 스님은 귀순 후 토벌대에 포로로 잡혀 주정공장에 수용됐다. 주정공장은 군부대의 조병창으로 사용하던 것을 1948년 초토화 작전 이후 수용소 시설로 사용했다. 제주 4·3사건 당시 가장 규모가 큰 수용소였다. 1948년 겨울부터 고구마를 저장하던 주정공장 언덕 위 10여 개 창고를 수용소로 쓰기 시작했다.

토벌대가 1949년 3월부터 선무공작을 펼치면서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났다. 1949년 4월 12일 상황 보고에 의하면 포로는 3,600여 명으로 파악됐다. 포로라는 이들 중 대다수의 사람들은 중산간 마을 주민들로 초토화 작전으로 인한 무차별 학살을 피해 산으로 도망갔다가 내려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후 이세진 스님은 잠시 풀려나 관음사포교당에서 은신하다가 1949년 7월 9일 사복경찰에 잡혀나가 수장됐다.

한금순 박사가 바라본 제주 4·3

서관음사

이세진 스님 적극 무장대 활동
토벌대, 도평리 주민 70명 학살

서관음사는 제주시 도평리에 있었으나 제주4.3사건으로 폐사됐다.

서관음사는 1942년에 이세진 스님이 창건했다. 이세진 스님은 1939년 제주불교연맹에서 교육부장으로 활동했고, 강원도 표훈사 중향강원의 강주, 대각사의 제주강원에서 학인을 배출한 강사 스님이었다. 이세진 스님은 사찰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서관음사에 기와공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제주4.3사건이 발발하자 이세진 스님은 입산해 이덕구가 이끈 무장대의 도당사령부에서 활동했다. 도당사령부는 50여 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세진 스님은 유격대장 이덕구와 함께 관음사를 근거지로 활동했으며 권총을 차고 다녔다고 한다.

1949년 1월 4일 토벌대 대장 함병선은 육해공군 통합작전으로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전개했다. 1949년 2월 12일 관음사가 불 질러지고, 무장대가 관음사전투에서 패하면서 이세진 스님은 귀순했다. 비행기로 귀순 삐라를 뿌렸는데 그 무렵쯤 귀순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세진 스님은 주정공장에 감금됐다. 당시 관음사 스님과 신도들이 면회하러 다녀오기도 했다. 면회를 다녀온 광순 스님은 밀밥을 먹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과 취조하는 비명 소리와 고함 소리, 죽어나오는 시체 등으로 주정공장 면회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세진 스님은 주정공장에서 풀려나 관음사포교당에 머물고 있던 중 다시 잡혀가 산지 바다에 수장됐다. 1949년 여름 무렵이었다. 이와 관련 이세진 스님에 대한 연구가 있다.(한금실, '이세진의 제주불교혁신운동 연구')

서관음사가 있던 도평리는 1949년 1월 3일 토벌대의 함정토벌로 도평리 마을주민 70여 명이 학살됐다. 외도지서 경찰과 군인이 무장대로 가장하고 주민들에게 무장대에 협조할 것을 종용하면서 무장대 협조 세력을 찾아내기 위한 함정을 꾸몄다. 그러나 이들의 얼굴을 알아본 주민들은 경찰 등이 위장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토벌대는 주민들을 도평국민학교 운동장에 집결시켜 주민 70여 명을 총살했다. 그리고 도평리 마을을 불 질렀다.

도평리 사라마을에 있던 서관음사도 토벌대에 의해 불태워졌다. 1980, 90년대 경까지도 서관음사 터에 미륵석불이 남아있었다고 전한다. 서관음사는 이세진 스님의 수장과 토벌대의 방화로 재건되지 못하고 폐사됐다.



한금순(제주대 외래교수)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제17교구 신도회

회 장 이근재
차석부회장 홍 대법성
부 회 장 문석순 조영석 김영섭 나유인 강철기
최병헌 박두섭 강석춘 정순례 이정희
한덕남 홍영옥
사무처장 이원일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 15길 1 전화 063)548-4441~ 2 | 팩스 063)548-1390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 (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 (주1회 특별수련)
■ 고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 (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징 : 제6차크라 (제3의 눈·뇌의핵심 〈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 (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후원계좌 : 국민은행 (611225-92-121426 박성호)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과학연구소 (소장 : 처명)